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잡도리도 좋고 실천도 좋다(민주조선 10.15)

- 김정일은 “모든 일군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개건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위원회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백운산 종합식료공장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함흥시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살림집건설, 함흥의학대학2호청사와 전자도서관건설, 함흥화학공업대학 전자도서관 건설 등 대상건설을 맡은 일군들도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공사속도를 높여나가도록 건설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민주조선 10.16)

- 경공업성의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성에서는 가을철 농촌지원사업이 제기되자 벼가을걷이전투에 노동력을 한사람이라도 더 내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음.
- 성의 책임일군들이 해당 농장에 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 때에 해결해주기 위한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음. 관리국별로 영농준비에 필요한 물자를 분담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였음.

□ 농업관리

○ 영농공정별 지도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민주조선 10.14)

- 온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100일 전투의 불 길속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꽤기 있게 해나가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농공정별 지도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일 해온 것처럼 올해농사의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가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서 자기 몫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꽤기 있게 해나가고 있음.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과 운반수단이 동원되는데 맞게 농기계부속품과 농기구생산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벼단뭉기와 동가리치기에서 낱알의 부패변질을 막고 허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2. 벼농사

□ 가을걷이

○ 가을걷이에 모든 힘을 집중(민주조선 10.8)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낱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벼가을걷이에 한창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계획아래 대담한 작전을 펼치며 실천하고 있음.
- 천군안의 농촌들, 특히 신암, 장산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벼가을전투에 힘을 쏟고 있음.
- 산두, 룡송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벼가을걷이목표를 높이 세우고 주인의 자세로 벼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14)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낱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농촌을 노동력과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농촌경리위원회와 긴밀한 연계아래 농촌지원 노동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농촌에 필요한 트랙터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시, 군에 있는 기관, 기업소에서는 가을걷이에 필요한 운반수단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도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수확 중에 이르는 수천 점의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각지 협동벌에 보내준데 이어 농장에 달려 나가 농업근로자와 한데 어울려 일을 하며 한 알의 낱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

○ 벼가을걷이를 더욱 힘있게(민주조선 10.15)

- 배천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당의 부름따라 100일전투에 힘차게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 농촌지원자들이 요즘 가을걷이에서 날마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며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군협동농장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낱알이 여무는 시기와 일기조건에 맞게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품종별, 필지별로 익는 즉시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지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일군들부터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 한편 벼단뭉기와 동가리치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또한 트랙터연결차와 달구지에 멍석을 깔고 벼단을 싣고 옮기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음.

○ 한 알의 낱알도 허실없이(민주조선 10.15)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를 가을걷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당면한 벼가을을 기본적으로 끝낸데 맞게 벼단꺼들이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작업반들에서 포전조건과 운반거리에 따라 소달구지와 각종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제때에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으며 운반도중 한 알의 낱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24)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족족 제때에 걷어 들이며 낱알털기도

빨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꿔 온 낱알을 말끔히 거두어 들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가을걷이의 모든 공정이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위원회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 있으며,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나가 초급일군과 함께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밟아보면서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농장의 초급일군들은 노동력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실적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음.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서 벃단꺼들이기가 진행되고 있음.
- 룡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논 면적이 많은 농장들에서도 벃단꺼들이기가 힘있게 진행되고 있음. 흑교, 석산, 금석협동농장들에서는 노동력 조직사업을 통해 탈곡기계의 보수정비사업을 계속 내밀면서 벃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

○ 탈곡기마다 만부하를(민주조선 10.25)

- 김정일은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빨리 실어 들여 낱알털기를 다그쳐야 한다.”라고 말함.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100일 전투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벃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힘있게 벌어나가고 있음.
- 협동벌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며 열의를 다 하고 있음. 낱알털기정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높이 세운 낱알털기일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낱알털기에 지장이 없도록 벃단꺼들이기를 앞세우는 한편 탈곡기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벃단을 꺼들이는 족족 털어내도록 하고 있음.

3. 밭농사

□ 가을걷이

○ 가을걷이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2)

- 봉천군안의 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일제히 강냉이가을걷이에 들어

가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김정일은 “강냉이가을을 빨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신담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 관련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한 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걷이 일정계획에 맞게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배치하고 그날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 버섯

○ 콩짚 1톤에 버섯 1톤(민주조선 10.23)

- 최근 연탄버섯공장에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재배하고 있는 콩짚버섯생산방법이 전국의 버섯생산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 공장에는 새롭게 건설된 갱도식버섯재배장과 야외재배장이 있으며, 공기갈이와 온도, 습도, 버섯블록(버섯재배기)운반 및 보관 등 버섯재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재배장에서는 버섯, 버섯종균, 버섯블록들이 생산되어 군안의 곳곳에 공급되고 있음.
- 콩짚은 조단백합량이 강냉이속보다 7배나 높아 강냉이 속으로 키울 때 넣는 쌀겨, 활성감탕, 집짐승배설물을 첨가제로 넣어야 하지만 콩짚은 이런 첨가제가 전혀 필요가 없으며, 강냉이속 1톤에 버섯 700~800kg이 생산되었으나, 콩짚의 경우 콩짚 1톤 당 버섯 1톤이 생산되었음.
- 콩짚버섯은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모양도 고음. 가정세대들에서 버섯블록을 부엌 세면장 같은데 놓아두고 버섯이 돌아나고 20~30일 지나서부터 2, 3차례 걸쳐 수확할 수 있음.
- 1개의 블록에서 보통 7kg이상의 버섯이 생산되며, 군안의 많은 세대에서 1개의 블록에서 3차에 걸쳐 10kg의 버섯을 수확하였다고 함. 따라서 봄과 가을 2차에 걸쳐 콩짚버섯종균을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130여개 단위에도 공급하고 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 감자캐기로 들끓는 대흥단군에서(민주조선 10.1)

- 김정일은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대흥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라고 말함.

- 군에서는 감자캐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접수장능력을 확장하고 신흥, 백산, 홍암농장에 있는 감자전분공장을 비롯한 가공기지를 확장하고 그것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미리부터 빈틈없이 세워놓음.
- 이와 함께 감자캐는 과정에 종자선별과 저장, 분배처리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음.
- 신흥, 홍암, 창평, 농사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캐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날마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1.2배 이상씩 해내고 있음.

5. 축 산

□ 축산동향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끈기 있게(민주조선 10.16)

- 룡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끈기 있게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올해 고기와 젖을 비롯한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산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집짐승사양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강습을 자주 조직하고, 비육분조와 농장원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종축작업반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집짐승사양관리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염소와 양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이동방목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물길공사

○ 물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어(민주조선 10.20)

- 미루별물길은 큰 규모의 독특한 자연흐름식물길임. 기본저수지와 평암저수지사이에 미루별로 물을 끌기 위한 100여리에 달하는 기본물길이며, 물길의 총연장길이는 수백 리에 달함.
- 기본저수지는 저수능력이 매우 크며 취수탑을 통하여 초당 수^m의 물을 뿜을 수 있음. 물길 상에는 수십 개의 물길굴과 780여개의 각종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흙물길과 연결되어 관개용수가 자연흐름 그대로 미루벌의 논밭까지 흘러감.
- 당 정책에 따라 이미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되었고, 이번 미루별물길 완공으로 인해 서해안지대 특히 해발고도가 높은 중부지대의 많은 부침땅면적에서 양수동력을 이용하는 기존관개체계가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전환되면서 알곡증산의 전망이 열렸음.

□ 국토관리사업

○ 국토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 달성(민주조선 10.7)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에서 150일전투기간에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음.
- 정평군, 덕성군, 부전군, 요덕군, 수동군, 함흥시 사포구역안의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장처럼 자기 단위의 양묘장건물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킨데 이어 나무모포전도 손색없이 가꾸어 놓음.
- 시, 군의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150일전투기간에 5,300여 정보의 면적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7,100여 정보에 달하는 땔나무림도 조성하였음. 150일전투기간에 도에서 나무심기계획은 110%로, 잣집림조성계획은 250%로 넘쳐 수행하였음.
- 단천시 갈파령 도로확장공사를 완성함. 토량처리량만 수십만^m에 달하고 10여 곳에 소구조물을 설치하고 수백^m에 다하는 옹벽쌓기를 해야 하는 이 공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공사임.

○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떨쳐나(민주조선 10.18)

- 1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 단계별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데 맞게 노동력 분배와

조건보장사업을 계획하여 국토관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보여주기 사업에서는 강하천제방공사 및 강안정리, 마을꾸리기, 수림화, 원림화 등 국토관리사업에서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남신의주 도로포장공사에 도적인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도로건설지휘부의 일꾼들이 이신 작척의 모범으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도로의 질보장을 위한 시공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7. 산 립

□ 통나무생산

○ 연간 통나무생산계획 넘쳐 수행(민주조선 10.7)

- 북창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통나무생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8월 31일 현재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145%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음.
- 사업소는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사업을 비롯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함.
- 계절적, 지형적 특성에 맞게 생산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면서 나무베기, 나무모으기를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움.
- 부족한 것이 많은 어려운 조건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통나무 생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렸음.

8. 기타 작물

□ 남새

○ 가을남새 비배관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10.16)

- 안주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시안의 주민들에게 김장용가을남새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 주변 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시 주변 협동농장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배추와 무를 비롯한 가을남새모 옮겨심기와 씨 뿌리기를 제철에 끝냈음. 협동농장원들은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1963년 8월 김정일은 해주시 석천협동농장을 방문하여 남새품종을 늘이고 선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남새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데 대한 가르침을 주었음.
- 작업반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확을 할 수 있는 다수확품종을 선택하여 가을남새심기를 진행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산열매

○ 흥하는 고장에 산열매 풍년이 들었다(민주조선 10.25)

- 김정일은 “김일성은 일찍이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는데 이는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림을 잘 조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함.
- 창성군에서 최근에 수백 톤에 달하는 산열매를 채취하였음. 이는 군에서 3년 동안 식료가 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방원료를 마련한 것임.
-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산열매를 허실 없이 제때에 채취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용할 목표아래 이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었음.
- 일군들이 산열매작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것을 기초로 군안의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 산열매채취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음.
- 산열매채취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도토리, 머루, 다래, 찹쌀이(산사열매)를 비롯한 수백 톤의 산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이룸.

9.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민주조선 10.3)

- 김정일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라고 말함.
- 강계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21.65%로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룸.
- 공장에서는 유도로를 새롭게 개조하여 종전보다 용해시간과 노동력, 보수시간을 줄였으며 가열로를 개조하여 연소효율과 가열온도를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보장함으로써 소재장입회수를 훨씬 늘리는 등의 기술혁신을 이뤄냄.

□ 비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민주조선 10.11)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가 지난 9일 진행됨. 보고회에는 비료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태문이 기념 보고하였음.
- 주체48(1959)년 10월 9일 김일성이 당시의 흥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고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함. 또한 지난 50년간 기업소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언급함.
- 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 관리를 통해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함.

□ 도시미화사업

○ 보다 위생 문화적으로(민주조선 10.8)

- 혜산시에서 생활환경을 보다 위생 문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시인민위원회에서는 9, 10월 위생월 기간에 시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가두인민반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혜흥동, 신흥동, 혜산동들에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에 외장재를 다시 발라 거리를 환하게 변모시켜놓음. 혜장동, 혜강동, 혜신동들에서는 간선도로에 석비레를 깔고 인도를 새로 포장하여 거리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 춘동, 마산동, 성후동들에서는 강하천정리보수사업에 힘을 넣어 춘동천과 성후천을 비롯한 강하천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있음.

○ 도시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자(민주조선 10.13)

- 10월은 도시미화 월간으로 지정함. 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김정일은 “도시미화사업을 잘하여야 도시를 더욱 문명하게 꾸릴 수 있으며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서는 100일 전투의 불길높이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함.
 -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이 사업에 대한 옳은 입장과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함. 또한 도시미화 월간에는 가을걷이와 국토관리총동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므로 조직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함.
 - 해당 단위들에서는 건물의 외장재바르기, 가을철나무심기, 구획정리, 울타리보수, 녹지조성, 물도랑정리를 비롯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월간사업계획을 대상별로 세부화하여 과학적으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월간사업에서 요구되는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야 함. 또한 장악총화사업을 잘하여야 이 사업에 대한 대중의 자각과 열의를 더욱 높여 도시미화 사업이 균중적으로 더욱 활기차게 벌어지도록 할 수 있음.
- 생활환경을 보다 알뜰하게, 균중적으로 활발히(민주조선 10.13)
- 증산군인민위원회에서 100일 전투의 불길높이 군안의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10월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일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위원회는 100여동의 아파트벽체와 울타리들을 보수하고 외장재를 바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물도랑정리와 오물장 및 위생시설정리, 집짐승우리들을 깨끗하게 가셔내고 보수 정리하는 사업을 맡은 위원회 일군들은 짧은 기일 안에 계획된 작업과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는 날짜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이어 매 단위들의 실정에 맞게 당면하게 해야 할 과제를 분담해주고 있음.
 -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외장재바르기, 울타리보수, 하천정리 등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읍거리 가로등을 새맛이 나게(민주조선 10.14)

- 김형직군인민위원회에서 읍거리의 낡은 가로등을 현대적미감이 나는 새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1단계로 먼저 1,500m구간에 대한 가로등공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음.
- 군안의 20여개 기관, 기업소에 구체적인 분담을 주고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끝내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동의 면모를 더욱 일신(민주조선 10.16)

-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가정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동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동, 인민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동, 인민반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 동에서는 거리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같이 인식시켜 그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지지도

○ 중앙양묘장과 타조목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로동신문 10.3)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양시교외에 있는 타조목장을 현지지도함.
- 김정일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현대적인 온실과 광활한 양묘장을 바라보며 묘목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한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나라의 수립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앙양묘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묘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함.
- 김정일은 목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이 몇 해 사이에 능력 확장공사를 비롯한 반대한 건설을 끝내고 생산을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목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있는데 대 만족을 표시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10.10)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함.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할 일념으로 농장의 실정에 맞는 알곡종자를 옳게 선택한 것을 토대로 논벼비배관리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어 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농장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였음.
- 김정일은 아담하게 꾸려진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집집승우리와 텃밭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무화주택을 훌륭히 건설한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산기슭마다 준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 및 공공건물들과 “추리동네”, “살구동네”를 비롯한 농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만족을 표시함
- 또한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 완공된 주택을 현지지도(민주조선 10.21)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 제1부 부장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과 함께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 완공된 주택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은 다음 새로 세운 살림집을 비롯하여 거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음.
- 김정일은 수도건설부아래 당원과 근로자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이 대규모의 거리와 맞먹는 방대한 만수대거리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제 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의 모든 살림집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만점짜리라 하며 이상적인 주택거리를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을 칭찬하였음.
- 김정일은 만수대거리를 돌아보고 현지에서 수도 평양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웅장하게 꾸려나가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9월26일종자돼지공장과 10월22일돼지공장을 현지지도(민주조선 10.23)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 제1부 부장 리제강, 리재일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 리명수와 함께 돼지공장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먼저 9월26일종자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4만 m²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종자돼지공장은 사료가공부터 먹이 및 물 공급, 돼지우리의 조명과 온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움직이며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는 실리 있는 기업소임.
- 김정일은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며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군인건설자들이 현대적인 종자돼지공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세운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종합지령실과 사육호에 들러 여러 가지 종자돼지의 특성과 사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사양관리를 과학화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새끼 돼지를 많이 받아 돼지공장에 보내주고 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였음.
- 김정일은 이어 새로 건설된 10월22일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함. 10월22일돼지공장은 고기생산과 가공은 물론 알사료생산공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다 갖춘 종합적인 축산기지임.
- 김정일은 10월22일돼지공장이 건설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재부를 후대들에 물려주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나타내었음.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고, 축산물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알곡소출도 높여야 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하면서 순환식고리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을 다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일은 10월22일돼지공장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